

나도 교환학생이다! (A부터 Z까지 교환학생의 모든 것)

*두 학기 동안 독일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한 학생으로서 한국에서의 준비 방법과 현지 생활 팁 그리고 준비해왔다면 좋았을 부분까지, 교환학생에 대한 모든 것을 가득 담아보았습니다. 파견 국가와 대학교마다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 글은 독일 “바이로이트 대학교”를 기준으로 작성된 글이오니,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이 글이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우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

차례

1. 출국 전 할 일 (A~F)
2. 현지에 도착 후, 할 일 (G~L)
3. 보람찬 교환학생 생활 즐기는 법 (M~S)
4. 귀국 준비 (T~X)
5. 현지 생활하며 느낀 흥미로운 것 TOP 10 (Y)
6. 프로그램 장/단점 및 개인 소감 (Z)

1. 출국 전 할 일

A. 교환학생 자금 마련

설레는 교환학생 생활을 마주하기에 앞서 금전적인 부분이 부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남대학교에서는 유럽/미주권 교환학생에게 파견 장학금으로 한 학기에 25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이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본인 같은 경우 교외 장학금 “미래에셋”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700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교내 장학금인 “도전장학금”에 지원해 180만 원을 받아 이 역시 교환학생 생활 자금으로 모아두었습니다. 그 외 아르바이트와 부모님의 지원금으로 예비 돈까지 모아둔 채 교환학생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교외 장학금과 학교에서의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교환학생을 한 학기 더 연장하였을 때는 전남대학교에서 지원금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보다 여유로운 자금으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셋 이외에도 아셈 듀오 등 여러 교외 장학재단이 있기에 교외 장학생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남대학교 도전장학금 역시 180만 원이라는 상당한 돈을 생활비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인기 많은 장학제도 중 하나이기에 꼭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달 동안 교환학생을 위한 적금을 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뿌듯하실 거예요!

B. 항공권 예매

항공권은 미리 예매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파견 국가까지 직항이든, 경유하든 항공권은 미리 예매해놓으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 스캐너

앱을 이용하면 원하는 국가까지 모든 항공사의 항공편과 항공료를 최저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경유한다면 경유 시간이 너무 짧지는 않을까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본인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나라를 여행하다가 파견 국가로 입국한다면 비행기 이외에도 파견 국가까지 이동하는 기차나 버스 등의 교통권 역시 미리 구매 할수록 더 저렴하고 자리가 많기에 이른 예매를 추천합니다.

C. 보험 가입

먼저, 한국에서 파견 국가에 도착하는 날짜까지의 기간에는 따로 보험을 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을 떠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건강, 수화물 짐, 핸드폰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처럼 바로 파견 국가로 가는 게 아닌, 미리 다른 나라를 여행하다가 파견 국가로 가는 경우 더욱이 따로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교환학생을 하신다면 현지 보험 가입이 필수 사항입니다. 본인 같은 경우 “엑스파트리오”라는 플랫폼에서 독일 현지 체류에 필수 사항인 TK 보험 가입과 슈페어konto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엑스파트리오 사이트에서 쉽게 독일 현지 체류를 위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으니 이 역시 출국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차피 독일에 도착하여 보험 활성화를 시켜야 하지만 미리 한국에서 가입이라도 하고 오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슈페어konto 역시 엑스파트리오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TK 보험 + 슈페어konto 패키지도 가입 가능하니 이 역시 미리 확인하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유럽권은 부분 무비자 90일까지 현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독일 현지에서 신청하여 수령했기에 비자 관련 이야기는 밑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든 현지에서는 비자 신청 시 TK 보험과 슈페어konto는 필수 사항입니다. 독일 교환학생 학우분들은 꼭 비자와 슈페어konto를 미리미리 잘 챙기시길 바라요!

D. 각종 카드 발급

먼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국제 학생증 카드를 발급해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각종 박물관이나 교통권 구매 등등 여러 부분에서 학생증 할인이 많더라고요! 국제 학생증 발급 비용 이상으로 이득이라 생각하니 하나 발급해 가시면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체크카드입니다. 현지에서 카드와 계좌를 만들게 되긴 할 테지만, 이와 별개로 한국에서 조건 좋은 해외전용 체크카드 하나를 챙겨가시길 추천합니다. 혹 여행 시 현지에서 발급한 카드가 사용이 안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국제적으로 어디서든 통하는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하나쯤 소지하고 있으면 편한 게 사실입니다.

E. 외국어 공부

파견 전 방학 시간에 틈틈이 외국어 공부를 하고 출국하시길 추천합니다. 실제로 제

가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기도 한 사항입니다! 본인은 파견 전 독일어학원을 다니면서 외국어 공부를 하고 갔음에도 더 열심히 조금이라도 공부해올걸, 이라고 느꼈습니다. 파견 국가 언어가 아닌 영어라도 좋으니 여유로운 방학에 열심히 외국어 공부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회화 부분!

F. 짐 싸기

아무래도 한 학기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다 보니 짐을 싸는 것도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구·샤워·주방용품 등 대부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이 많기에 큰 걱정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래의 표는 실제로 교환학생 오기 전에 가져올 것들을 적어놓은 물품들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확인하면서 알뜰히 짐 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기기	옷(계절 따라 상이)	세면도구, 화장품류	신발, 가방	서류	기타
노트북	잠옷	클렌징폼	운동화 2개	입학허가서	고무장갑
노트북 충전기	기분티 (긴팔,반팔)	선크림	슬리퍼	항공권	진드기 퇴치제
핸드폰 충전기	후드티	욕실 슬리퍼	백팩	증명사진	소매치기 방지용품
멀티탭	맨투맨	마스크팩	에코백	여권 사본	수건
멀티어댑터	니트	스킨, 로션	크로스백		압축팩
와이파이	청바지	샤워 필터			한국 약
USB	허리띠	화장품			동전 지갑
학용품	가디건	파우치			공병(유심)
공책	코트				빨래 망
필기구	후드집업				
	속바지				
	양말				
	속옷				

● 챙겨오길 추천하는 물건: 멀티어댑터, 클렌징폼, 선크림, 고무장갑, 진드기 퇴치 스프레이, 수건, 압축팩, 손 선풍기, 한식!!!

●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될 물건: 드라이기, 멀티탭, 와이파이, 침구류 -> 현지 구매

2. 현지에 도착 후, 할 일

G. 거주지 등록 (Anmeldung, 안멜등)

거주지 등록은 시청에서 합니다. 시청 사이트에서 예약을 잡고 갔습니다. 거주지 등록이란, 말 그대로 본인이 이 지역에 살겠다고 등록하는 것이며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때도 이 지역에 더이상 살지 않겠다는 Abmeldung (압멜등)을 해야 합니다.

H. 기숙사 입주

독일 기숙사에는 건물 관리인인 하우스마이스터 (Hausmeister)가 있습니다. 하우스마이스터에게 키를 받고 입주하면 됩니다. 열쇠는 두 개를 받게 되는데 하나는 집 열쇠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본인의 우편함 열쇠입니다. 본인에게 오는 우편은 본인의 우편

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에 입주하면 먼저 고장 나거나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나중에 방 뺄 때를 대비해 사진과 영상을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또 수리 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하우스마이스터에게 말하면 고쳐줍니다.

I. 비자 신청

앞서 얘기했듯이 본인은 독일 현지에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독일 바이로이트 기준으로 여권, 여권 사진,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보험증명서, 재정증명서, 거주지 등록증, 비자 신청서, 비자 발급료가 필요했어요. 현지에서 비자 발급을 받으실 예정이라면, 파견 대학 지역 시청이나 파견 대학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 휴대폰 유심 개통

본인은 알디톡 (Aldi)유심을 개통했습니다. 알디톡은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가장 교환학생이 많이 개통하는 유심 회사 중 하나라 정보도 많아서 선택했습니다. 처음 개통을 위해 독일 알디 마트에 가서 스타터 상품을 구입하고 알디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상품에 적혀있는 일련번호들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알디톡 개통 마지막에는 직원과 화상통화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을 모두 거치면 유심 개통이 끝납니다. 이후 그때그때 필요한 데이터를 사서 이용하면 됩니다.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갈 때를 대비해 한국 유심은 공병에 넣어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하지 않는 한, 한 달에 3기가면 충분한 것 같아요!

K. 현지 카드 발급

매달 낼 기숙사비와 현지 보험비를 위해 현지 계좌와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는 한국의 카카오뱅크와 비슷한 N26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N26은 무엇보다 개설이 쉽고 마스터카드라 독일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쓸 수 있으며, 다른 친구에게도 돈 입금이 빠르게 가능해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개통하는 데 정보를 찾기도 쉬웠어요! N26 역시 마지막에 직원과 화상통화를 해야 합니다. N26 계좌에 매달 들어오는 슈페어konto 비용으로 기숙사비와 보험비 같은 고정 지출 비용이 자동 이체되었고, 혹 생활비가 모자라는 순간에는 송금 어플을 이용해서 한국 돈을 유로로 이체했어요!

L. 한국에서 택배 받기

한 학기 연장하여 계절 옷이 필요할 때, 짐이 너무 많을 때 등등 한국에서 택배를 받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도 두 번이나 한국에서 택배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우선 독일의 이름있는 택배 회사 DHL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싸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택배가 어디쯤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을뿐더러 본인이 택배가 도착하는 시간에 집에 있지 않으면 다시 택배를 수거해간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러한 문제로 결국 다시 한국으로 반송시키는가 하면, 택배를 분실한 사건도 여럿 봤습

니다. 그래서 본인은 “온무빙”이라는 한국 해외 배송 사이트를 이용했었는데 카카오톡으로 계속 위치도 알려주시면서 무엇보다 대부분 3일 안에 택배를 받아 볼 수 있었고 택배함 안에 놓고 가기에 그 시간에 본인이 없어도 택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택배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한국-해외 택배사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3. 보람찬 교환학생 생활 즐기기

M. 학교 행사 참여

교환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예컨대 캠퍼스 투어, 근교 여행, 한국인의 밤, 한국어 언어 교환 등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매주 열렸답니다.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 문화도 공유하며 교류하다 보면 한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할 한층 보람 있는 생활이 될 거예요! 학교 이벤트 행사도우미로 참여해보는 것도 정말 추천해요!

N. 외국인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

위에서 학교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었으면 이에 그치지 않고 또 재밌게 놀아야겠죠? 같이 파티도 하고 근교 여행도 가고 또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식을 대접하고 또 다른 나라 음식도 먹어보며 끊임없이 교류해보세요! 외국어 실력도 향상되고 지식과 시야도 넓어지는 경험이 될 거예요.



O. 외국어 자격증 취득

본인은 교환학생 기간에 괴테 독일어 B1을 취득했는데요, 저는 독일어를 전공하는 사람이지만 주변에 독일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교환학생을 온 친구도 같이 독일어 자격증에 도전해 취득했습니다. 한국보다 시험 날짜도 일주일 간격으로 많고 결과도 빨리 나와서 좋습니다. 교환학생 생활 중인 독일 현지에서 독일어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정말 의미 있고 뿌듯했어요! 높지 않은 레벨이어도 좋으니 기회가 된다면 도전해보시는 것도 보람찬 교환학생 생활이 될 듯합니다.

P. 유럽 여행

유럽권 교환학생이라면 꿈꿔 보았을 유럽 여행! 일단 지리상 나라와 나라가 붙어 있다 보니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기차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고 비행기도 정말 저렴해요. 비행기로는 2시간 정도면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답니다. 물론 기차나 버

스를 타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요. 유럽은 휴일도 많고 특히 교환학생들이 시간표만 잘 짜면 일주일마다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여행 가기 쉽습니다. 한가지 좋은 팁을 드리자면, 교환학생들이라면 파견 대학교에서 학생증을 받을 텐데, 이는 EU 학생증에 해당하여 프랑스 파리의 거의 모든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공짜로 입장할 수 있는 등 다양한 EU 나라에서 혜택이 많으니 꼭 학생증으로 여러 나라를 여행해보세요!

Q. 학교 수업

교환학생을 왔다고 무작정 놀 수만은 없죠. 수업이 노는 것보다 재밌을 수는 없겠지만 노는 것처럼 재밌는 수업도 많습니다. 태권도, 검도, 펜싱, 요가 등의 인기 많고 재밌는 스포츠 수업도 있고 여러 나라 언어 수업도 있습니다. 다 같이 서서 직접 돌아다니며 친구들과 대화하는 등 한국과는 다른 수업 방식으로 이루어져 수업이라는 생각보다 마치 노는 듯한 재밌는 수업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이 있다 보니 새로운 언어 수업에 신청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해당 나라에서 온 외국인 친구에게 물어보고 같이 대화하면서 영어나 독일어 이외에도 새로운 언어를 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던 것도 참 좋았어요. 평소 관심 있던 수업들도 열심히 참여해보도록 해보세요!

R. 생활 물가와 대중교통

독일은 식료품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기숙사에 주방이 있기에 대부분 직접 요리해 먹는 편입니다. 특히 과일과 고기가 한국과 비교해 정말 저렴합니다. 굴 작은 한 상자에 3유로 정도밖에 안 하며 소고기도 7~8유로 정도밖에 안 해요. 독일에 가신다면 과일과 소고기 잔뜩 드세요! 그리고 학기 초에 독일 대학교에 학생회비를 내게 됩니다. 이게 독일 대학 지역 대중교통비를 포함하게 되어서 학생증만 있다면 그 지역 대중교통은 무료예요! 그래서 학생증만 보여주고 버스를 탑니다. 택시도 있지만, 택시비가 한국과 달리 엄청 비싼 편이라 웬만하면 잘 이용하지 않아요.

S. 학생 혜택 이용하기

학생 혜택이 많이 있는데, 그중 아마존 프라임 가입입니다! 한국의 쿠팡처럼 독일에 살면서 많이 쓰게 될 사이트가 아마존인데 아마존 프라임은 가입비를 조금 내고 물건을 바로 빠르게 받아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아마존 프라임을 무료로 6개월간 이용할 수 있어요. 독일 대학교 이메일이 필요하기에 학교에서 이메일을 받게 되면 가입해서 유용하게 쓰면 좋겠습니다! 또, 위 여행에서 말했듯이, 유럽 학생증으로 여러 나라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무료입장이 가능해요. 평소 가고 싶던 관광지에 EU Student 라는 표시가 있는지 사이트에서 확인해보고 학생증으로 꼭 혜택 누리며 여행 다니세요! *그리고 독일에서 기차를 이용할 때 “반 카드”라는 카드가 있는데 30%, 50%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를 구매하면 그 기간에 독일 기차표를 살 때 반 카드로 기차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반 카드 6개월짜리 50%를 구

매하면 6개월 안에 기차표 50유로짜리를 구매하면 25유로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독일도 여행할 지역이 많고 기차표도싼 편이 아니니 (미리 구매할수록 저렴한 시스템) 반 카드도 구매해서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귀국 준비

T. 기숙사 정리

처음 입주했을 때처럼 깔끔한 상태로 퇴실해야 합니다. 방 빼기 이전에 하우스마이스터와 시간 약속을 잡은 뒤 깨끗하게 청소하고 방 검사를 맡아서 통과한 후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석회수가 나오기에 화장실 바닥 석회를 석회 제거제로 잘 청소해야 합니다. 고장을 내거나 손상 입힌 부분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깎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한국과 달리 여름학기 9월 말, 겨울 학기 3월 말이 종강이라 내가 2월에 한국에 돌아가도 3월 기숙사비를 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방지하려면 기숙사에 3월부터 들어올 사람을 찾아야지만 기숙사비를 안 낼 수 있습니다. 퇴실하고자 하는 기숙사 날짜 최소 3개월 전에는 미리 기숙사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미리 들어올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달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U. 성적 처리

파견 대학교 국제협력과에 성적을 한국의 대학교로 보내달라고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성적은 조금 늦게 나오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 성적은 1부터 5까지 중에 있으며 1.0이 가장 최고점입니다! 그리고 독일 대학교 성적에는 낙제도 있어요! 한국과 달리 과제나 출석보다 시험 성적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V. 퇴거 신고 (압멜dung, Abmeldung)

처음 독일에 왔을 때 거주지 등록 압멜dung을 했다면 돌아갈 때도 반드시 퇴거 신고인 압멜dung을 해야 합니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뒤 여권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W. 퇴학 신청

보통 교환 학기가 끝나는 기간에 맞춰 자동으로 퇴학이 이루어지지만, 위 기숙사 정리에서 말했듯이 한국과 독일은 종강 시기가 달라서 독일이 종강하기 한 달 정도는 전에 미리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럴 때는 보험 해지를 위해서 반드시 조기 퇴학 신청을 국제협력과에 가서 해야 하는데요, 퇴학 신청하러 간 당일 바로 퇴학하는 게 아닌 퇴학할 날짜를 선택할 수 있기에 조금 미리 가서 퇴학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X. 해지

TK 보험, 아마존 프라임, 반 카드, 카드를 해지해야 합니다. TK 보험은 퇴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마존 프라임은 아마존 앱 내 계정에서 간단하게 해지할 수 있고 반 카드는 끝나는 날짜 최소 3개월 전에 해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연

장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카드는 모르겠지만 N26은 나중에 해외에 다시 올 때 사용하려고 따로 해지하진 않고 그냥 놔두었습니다. 알디 유심은 그냥 버리면 됩니다.

5. 흥미로운 독일 생활

Y. 현지 생활하며 느낀 흥미로운 것 10가지

1. 독일은 0층이 있다.

=> 독일 모든 건물은 0층이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2층이 독일에선 3층인 셈입니다.

2. 대부분 열쇠를 사용한다.

=> 독일은 아직도 거의 모든 건물에 있어 열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쇠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열쇠를 집에 놓고 오거나 잃어버리면 열쇠 아저씨를 따로 불러야 합니다.

3. 지하철을 직접 문을 열거나 버튼을 누른다.

=> 모든 지역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 지하철을 직접 손으로 열거나 버튼을 누른 다음 문을 엽니다.

4.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돈을 내야 한다.

=> 한국과 달리 약 50센트 ~ 1유로 정도 돈을 내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이동식 놀이기구가 자주 온다.

=> 독일은 지역별로 지역 축제가 많은 편이고 이동식 놀이기구가 흔합니다.

6. 아이스 음료를 보기 어렵다.

=>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숍을 제외하고는 커피숍에서 아이스 음료를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아이스는 독일어 발음으로 아이스크림을 의미하기에 간혹 아이스를 달라 그러면 커피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려주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7. 독일에는 일요일에 문을 여는 식료품 가게가 없다.

=> 한국과 달리 일요일에는 식료품 마트가 일요일에는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바이에른주는 특히나 저녁 8시가 되면 식료품 가게가 문을 다 닫습니다. 일요일은 물론 늦은 시간까지 열려있는 한국 마트들과는 확연히 달라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8. 독일 고속도로는 속도가 무제한이다.

=> 독일 고속도로는 속도가 있는 구간도 있지만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차들이 달립니다.

9. 독일 신호등은 버튼을 눌러야 바뀐다.

=> 독일 신호등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를 모르고 하염 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적이 있습니다.

10. 어떤 일이든 항상 약속 (테어민, Termin)을 잡고 방문해야 한다.

=> 독일은 약속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어떤 곳을 방문할 때 늘 테어민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나 메시지보다 이메일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6. 프로그램 장/단점 및 개인 소감

Z. 하고 싶은 말

영어도, 독일어도 뛰어나게 못 하는 제가 교환학생을 다녀온 것을 감히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과 이야기해보고자 최선을 다했고 그로 인해 영어 실력도, 독일어 실력도 스스로가 향상됐다고 느낄 만큼 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 독일에서 한 명의 이방인으로서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 독일어로 수업을 듣는 것 그리고 독일에서 독일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등 저에게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하면서 성취감, 독립심을 얻고 스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으며 참 교환학생에 지원하길 잘했다고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은 본인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 앞으로 미래에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되어줄 만큼 값진 경험으로 남을 수도, 아니면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통해 이루고 싶던 경험을 하며 후회 없는 교환학생 생활을 남기시길 바랍니다!